

## 2019~2020년 임원보수 공시 현황 분석

---

---

조대현 (육군3사관학교 경제경영학과 강사)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I. 서론

II. 전체 임원 보수 공시 현황

III. 5억원 이상 보수 수령 임원 대비 기타 임직원 보수 비교

IV. 5억원 이상 보수 수령 임직원 현황

V. 대기업집단 5억원 이상 보수 수령 임직원 현황

VI. 결론 및 시사점

■ 경제개혁연구소(부소장 :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2013 년 상장회사 임원보수 공시부터 매년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임원보수 관련 종합 보고서, 개별보수 공시 임원의 고액보수 분석 보고서, 개별 임원보수의 성과연동성 분석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음. 본 보고서는 경제개혁리포트 2019-8 호에 이어 임원보수 공시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함

- 2018 년부터 등기임원 포함 5 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상위 5 인의 개별보수가 공시대상이 되어 일부 미등기임원과 직원의 고액보수 내역이 공시됨. 이에 2019 년 보고서부터 '등기임원' 외에 미등기임원 및 직원을 구분하여 비교, 분석함

■ 2019 년과 2020 년 중 5 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자가 최소 1 명 이상 존재하는 상장회사는 전체 상장회사 중 32%에 해당함. 이를 상장 시장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보다,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위 비율이 월등히 높음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약 50%는 5 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자가 최소 1 명 이상 존재하는데,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그 비율이 약 20%에 그침.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약 2/3 은 5 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자가 최소 1 명 이상 존재하는데, 대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회사는 그 비율이 약 26%에 그침

■ 2019 년과 2020 년 중 전체 상장회사에 사내이사가 약 7,000 명, 미등기임원이 약 21,000 명 재직 중이었음. 사내이사 중에는 12%~13% 정도가 5 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별보수가 공시되고, 미등기임원 중에는 3% 정도의 개별보수가 공시됨.

- 이 비중 또한 위와 같이 상장 시장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보다,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위 비율이 월등히 높음

■ 전체 사내이사는 평균 3.2 억원, 미등기임원은 평균 2.3 억원 가량의 보수를 수령하여 2019~2020 년 중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하지만, 개별보수가 공시된 사내이사 및 미등기임원의 평균보수는 동일 기간동안 증가 추세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일회성 급여를 제외해도 고액 보수를 수령하는 미등기임원의 평균 보수액이 2019 년 대비 약 20%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추세는 특히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서 고액 보수를 지급한 것에 따라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개별 보수가 공시된 사내이사 및 미등기임원의

평균보수가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회사에서는 2019 년 대비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서는 2019 년 대비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사내이사 및 미등기임원의 보수를 직원의 평균급여와 비교할 경우, 2019 년 대비 2020 년에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적게는 2.5 배에서 많게는 24.83 배까지 그 격차가 발생함. 특히,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서 일회성 요소를 제외해도 고액 보수를 수령하는 미등기임원의 평균보수와, 계열사 직원의 평균보수를 비교할 때 2019 년에는 19.18 배, 2020 년에는 24.83 배의 격차가 발생하였음
- 개별 사례를 살펴봤을 때,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대표이사는 2020 년 중 184 억원의 보수를 수령하여 동 회사 직원 평균보수인 1.05 억과 175 배의 격차를 보였고, 씨제이제일제당의 손경식 회장은 2020 년 중 102 억원의 보수를 수령하여 동 회사 직원 평균보수인 64 백만원과 160 배의 격차를 보였음

■ 5 억원 이상 고액 보수를 지급받는 임직원을 대기업집단 계열사 여부, 등기임원 여부, 지배주주 여부로 구분하여 일회성 요소를 제외하고 비교하였을 때, 1) 비대기업집단보다는 대기업집단에서, 2) 미등기임원보다는 등기임원이, 3) 전문경영인보다는 지배주주일가가 주로 평균보수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음

- 높은 쪽에 셋 다 해당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지배주주 등기임원 평균보수가 2019 년 21.3 억원, 2020 년 22.8 억원으로 그 중 가장 높았고, 셋 다 해당하지 않는 비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전문경영인 미등기임직원 평균보수는 2019 년 6.4 억원, 2020 년 7.5 억원으로 그 중 가장 낮았음

■ 임직원의 개별보수 공시를 대기업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주의 환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음. 특히, 복수의 계열사로부터 고액 보수를 수령하는 경우, 대기업집단 내 지배주주만 고액보수를 수령하는 경우, 대기업집단 내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의 보수 격차가 과도한 경우, 과도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대기업집단 중 2019 년 동국제강, 에이치디씨, 케이씨씨 태광, 2020 년 에이치디씨, 태광은 지배주주일가만 5 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하였음. 특히, 에이치디씨의 경우 정몽규 회장이 기업집단 내 유일한 5 억원 이상 보수 수령자였음

-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일가 중 씨제이 이재현 회장, 손경식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은 일회성 보수 항목을 제외해도 100 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해가 존재함
- 금호석화그룹은 박찬구 회장이 단일계열사에서 51 억원을 수령하면서 전문경영인과의 격차가 2019 년 8.45 배, 2020 년 6.14 배 발생, 하이트진로는 2020 년 박문덕 회장이 54 억원, 김인규 대표이사가 5.8 억원을 수령하여 그 격차가 9.25 배 가량 발생함
- 2020 년 기준 롯데 신동빈은 5 개 계열사, 하림 김홍국은 4 개 계열사, 씨제이 이재현, 케이씨씨 정상영, 한라 정몽원, 에스케이 최창원, 에이치디씨 정몽규는 3 개 계열사로부터 5 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하였음
- 2019~2020 년 중 퇴직금을 100 억원 이상 수령한 사례는 한진 조양호, 케이씨씨 정몽익, 효성 조석래가 있었음. 특히, 한진그룹의 고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에서의 퇴직소득만 472 억원에 해당하고,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그 외 계열사로부터의 퇴직소득을 전부 합하면 650 억원대에 이룸

▣ 개별임원 보수 공시 의무화는 위와 같은 일련의 격차들이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인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 이에 임원 보수 공시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함

- 개별보수 공시 임원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현재는 '1) 5 억원 이상 등기임원, 2) 5 억원 이상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직원 중 상위 5 명'의 개별보수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 등기임원 전원, 2) 미등기임직원 중 상위 5 명'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복수의 계열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가 존재할 때는 사업보고서 상 계열사 겸임 내역을 공시해야 하듯이 기업집단 내에서 수령한 보수 내역을 합산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개별 보수의 산정 기준이나 방법을 일관되게, 추상적이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하도록 유도하고, 명문화된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개정 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이 공시되지 않고 있어, 만일 회사 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 2019~2020년 임원보수 공시 현황 분석

조대현 (육군3사관학교 경제경영학과 강사)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 I. 서론

### 1. 연구목적

2013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2013년 말부터 상장회사 등기임원은 전체 지급된 보수내역 뿐 아니라 연간 보수를 5억원 이상 수령하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시하게 되었다. 2018년부터는 등기임원이 아닌 임직원도 5억원 이상 고액보수를 수령할 경우 상위 5명까지 개별보수 내역을 공시하게 되어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임원보수 지급과 관련한 공시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이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주목이 필요하다고 부분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련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에 제언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 2. 분석대상 및 방법

#### 1) 분석대상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 선정 기준은 과거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임원보수 공시현황 분석' 및 '상장회사 고액보수 임원 분석' 보고서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결산일이 2019년과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되는 유가증

권 상장회사와 코스닥 상장회사가 분석대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외국법인, 선박과 부동산 등 투자회사를 제외하였으며, 그 밖에도 회사채를 발행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비상장법인과 코넥스 상장회사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대상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1년 3월 31일까지 제출된 2019년, 2020년 회계연도 보고서이다. 비교분석을 위해 2018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임원의 개별보수 자료를 일부 사용하였다. 사업보고서 제출 후 정정공시를 통해 공시내역이 수정되는 경우 5월 말까지 최종 공시된 내역을 반영하였다. 기중 결산기가 변경되어 사업보고서가 복수로 제출된 경우 보수를 지급한 전체 기간이 긴 사업보고서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 2) 분석기준 및 방법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5억원 이상)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과 별도로 '보수지급 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이 공시되면서 경제개혁리포트 2019-9호부터 기존의 고액보수를 수령하는 등기임원 외에 일부 미등기임원과 직원(이하 미등기 임원등)이 분석대상에 포함된다. 2019~2020년 개별보수를 공시한 미등기임원등 외에 2018년 미등기임원등의 개별보수도 연도별 비교 분석을 위해 필요 시 포함하였다.

전체 분석대상 회사 및 개별보수를 공시한 회사는 대기업집단과 대기업집단이 아닌 회사(이하 비대기업집단)로 분류하였으며, 고액보수를 수령한 임원을 지배주주(일가)와 비지배주주(전문경영인, 직원 등),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등으로 분류하였다. 고액보수 수령 임

원 중 기중 사임 또는 퇴임한 경우 기중 등기임원으로서 보수를 수령한 것을 고려하여 등기임원으로 분류하였으나, 기준일 전 등기임원을 사임하고 기준일 현재 미등기임원으로 보수를 받은 경우 미등기임원으로 분류하였다.

사업보고서에 개별공시되는 5억원 이상의 보수는 급여와 상여, 주식매수선택권(행사하여 이익이 실현된 당해연도 공시), 기타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의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보고서에서 분류한 항목에 따라 보수를 구분하였다. 상여는 정기상여, 직급별 상여와 같이 급여 성격의 보수와 성과 평가에 따라 주어지는 성과급이 혼재되어 있는데 본 보고서는 일괄적으로 상여를 성과급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퇴직금 항목과 별도로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기타근로소득으로 분류한 경우 회사가 산정기준 및 방법에서 공시한 금액을 확인하여 퇴직금 항목으로 포함, 재분류하였다. 그 밖에 보고서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임원(등기임원) : 등기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와 감사.

(2) 임원 수 : 등기임원의 수는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유형별 임원 보수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함. 임원 수에 퇴임 임원을 포함하는 경우,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만을 포함하는 경우 등 회사별로 기준이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실제 보수를 수령한 임원 수를 기준으로 함

(3) 대기업집단 : 2019년과 2020년 공정위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의미하며, 비대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상장회사를 뜻함.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소속은 지정 당시 소속으로 판단함. 예를 들어 2020년 11월 현대백화점 계열사로 편입된 현대바이오랜드(구 에스케이바이오랜드)의 경우 본 보고서에서 에스케이 계열사로 분류함

(4) 등기임원 : 개별보수 공시 임원을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등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보수수령 당시 등기여부로 함. 즉 기중 등기임원을 사임 또는 퇴임했더라도 사업보고서에서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이 아니라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항목에서 공시한 경우, 등기임원으로서 퇴직금을 포함한 보수를 받은 임원을 '등기임원'으로 분류함. 미등기임원은 등기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임원과 등기임원 사임 또는 임기만료 후 자문이나 고문 직책으로 보수를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함

(5) 지배주주(일가) :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지배주주 및 그 친인척, 공동경영자 등을 포괄하며, '비지배주주'는 그 외 전문경영인과 직원 등을 의미함

(6) 임원보수 : 개별임원 보수 외 등기임원 전체에게 지급된 보수는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및 감사 등 유형별로 공시되며, 각 지급액을 유형별 임원 수로 단순평균한 것이 평균보수임. 회사별로 기중 퇴직임원 포함여부, 무보수 임원 포함여부 등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 최대한 실제 보수를 수령하는 임원 수를 산출함.

미등기임원의 경우 다수 회사가 기준일 현재 임원 수와 전체 회계연도 지급된 미등기임원 보수를 공시하여 실제 평균금액과 다를 수 있으나 차이는 크지 않음.

분할, 합병, 상장 등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기준일 당시 회사와 동 회사가 공시한 보수내역을 기준으로 하되, 분할 전 회사의 보수 포함 연간 보수 총액을 기재하는 경우, 분할 등 후의 보수만 기재하는 경우 등 회사별로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최대한 실제 지급된 보수를 산출함.

(7) 성과급 : 사업보고서의 공시 항목인 '상여'는 급여 성격 보수와 인센티브와 같은 성과급을 구분하지 않고 더하여 기재한 경우가 다수임. 그러나 '상여' 항목의 산정기준 및 방법에서 성과급과 급여 명목 보수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명절비 등 급여 성격 보수는 전체 '상여'항목 보수 중 비중이 크지 않아 본 보고서는 '상여' 항목 전체를 성과급으로 분류함.



### 3) 분석의 한계

본 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보고서 상 임원보수 및 개별임원의 보수 공시 기준이 각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분석대상 및 방법에서 설명했듯 개별임원 보수 항목별 분류 기준이나 전체 임원수와 보수총액 산정 기준, 시점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본 보고서는 회사의 공시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보수를 수령한 이사와 보수액'을 기준으로 과다, 과소기재를 수정하였다. 등기이사 수나 보수총액에 사외이사 수와 보수를 포함시킨 전체 임원 수와 보수를 기재하거나, 무보수 이사를 포함시키는 경우, 사외이사과 감사위원 수와 보수를 중복 공시하거나 감사 수에 전체 임원보수를 기재하는 등 사업보고서의 공시 오류는 각 회사별로 파악하여 최대한 수정하였다.

특히, 미등기임원과 관련한 차이가 회사마다 크게 존재하여 비교가능성에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가령, 카카오의 경우 회사 정책 상 별도로 미등기임원을 두고 있지 않아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에 아무것도 공시되어 있지 않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2020년 중 미등기임원이 964명이나 존재한다. 이와 함께 개별보수 공시 대상이 5억원 이상 수령하는 '상위 5명'임을 고려하면 회사마다의 차이는 더 커지게 된다. 가령, 특정 회사에 5억원 이상 수령하는 임직원이 5명 이내로 존재할 경우, 그 회사 내 5억원 이상 보수 수령자에 대한 정보는 100% 공시되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회사에 5억원 이상 수령하는 임직원이 5명을 초과하여 존재한다면 상위 5명까지만 그 정보가 공시되어 5억원 이상 수령하지만 그 정보가 공시되지 않는 자가 존재하게 되고, 공시 비율도 지극히 낮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외에도 공시 항목마다 공시 대상의 설정 방법이 달라서 비교가능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사업보고서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중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에는 '미등기임원'과 관련한 내용만 공시된다. 반면, 5억원 이상의 상위 5명에 해당하여 개별보수가 공시되는 대상자들은 '등기임원이 아닌 임직원'이라 그 범위가 더 넓어진다. 5억원 이상의 상위 5명에 해당하여 개별보수가 공시되는 대상자가 대부분의 경우 미등기임원에 해당하여 이하의 분석에서 분모를 미등기임원 수로 설정하였으나, 엄밀하게는 미등기임원이 아닌 직원이 상위 5명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어 그 대칭이 맞지 않는다.

## II. 전체 임원 보수 공시 현황

### 1. 상장 시장 기준 개별임원 보수 공시 현황

분석대상인 회계연도가 각 1월 말부터 12월 말 사이인 상장회사는 2019년 2,113개사, 2020년 2,154개사다. 이 중 유가증권 상장회사는 약 36%인 774개사, 775개사며 나머지는 코스닥 상장회사다. 개별 임직원이 5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하여 최소 1명이라도 그 내역을 공시한 회사는 2019년 671개사, 2020년 692개사로, 약 32%의 상장회사에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하는 임원이 최소 1명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약 51%~52%, 코스닥 상장회사의 약 20%~21%에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하는 임원이 최소 1명 존재한다.

분석대상 회사의 전체 등기 사내이사 수는 2019년 7,133명, 2020년 7,292명인데, 이 중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별 보수가 공시된 사내이사는 각각 891명, 958명으로 이

는 전체 사내이사 중 약 12%~13%에 해당한다. 개별보수 공시 사내이사의 약 2/3는 유가증권 상장회사 등기임원이며, 나머지가 코스닥 상장회사 등기임원이다.

한편, 미등기임원 또는 직원이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하면서, 등기임원까지 포함하여 보수 순위를 매겼을 때 상위 5명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보수가 공시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미등기임원등은 2019년 559명, 2020년 585명이었다. 전체 상장회사의 미등기임원 등의 수가 약 21,000명 내외임을 고려했을 때 이는 약 3%에 해당하는 것이다. 단 개별 보수를 공시한 미등기임원등은 상위 5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미등기임원 외에도 고액보수를 받는 직원, 특히 주식매수선택권 처분 이익으로 보수가 급증한 직원 등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액보수를 수령한 '미등기임원'만의 비중은 실제 더 낮을 수 있다. 개별 보수가 공시된 미등기임원 중 유가증권 상장회사 소속은 2019년 459명, 2020년 478명,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소속은 2019년 100명, 2020년 107명에 해당한다. 각 시장의 전체 미등기임원 수와 비교할 경우 유가증권시장은 약 4%, 코스닥시장은 1%의 미등기임원에 대해 개별보수가 공시되었다.

<표1> 상장 시장 기준 임원 보수 공시 현황 (2019년)

시장 구분	회사 수 (개사)			사내이사 수 (명)			미등기임원 수 (명)		
	전체	개별보수 공시	비율	전체	개별보수 공시	비율	전체	개별보수 공시	비율
유가	774	404	52%	2,537	585	23%	12,575	459	4%
코스닥	1,339	267	20%	4,596	306	7%	8,107	100	1%
소계	2,113	671	32%	7,133	891	12%	20,682	559	3%

<표2> 상장 시장 기준 임원 보수 공시 현황 (2020년)

시장 구분	회사 수 (개사)			사내이사 수 (명)			미등기임원 수 (명)		
	전체	개별보수 공시	비율	전체	개별보수 공시	비율	전체	개별보수 공시	비율
유가	775	397	51%	2,575	621	24%	12,615	478	4%
코스닥	1,379	295	21%	4,717	337	7%	8,475	107	1%
소계	<b>2,154</b>	<b>692</b>	<b>32%</b>	<b>7,292</b>	<b>958</b>	<b>13%</b>	<b>21,090</b>	<b>585</b>	<b>3%</b>

## 2. 대기업집단 소속 기준 개별임원 보수 공시 현황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2019년 266개, 2020년 280개사로 전체 분석대상의 약 13%에 불과하다. 하지만, 개별 임직원이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하여 최소 1명이라도 그 내역을 공시한 계열사는 2019년 189개사, 2020년 185개사로,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2/3 이상이 최소 1명 이상의 임직원에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비대기업집단 회사 2019년 1,847개, 2020년 1,874개사 중 위와 같은 사유로 개별 임직원 보수를 공시한 회사 비율은 2019년 26%, 2020년 27%로 대기업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개별보수가 공시된 대기업집단 사내이사는 2019년 327명, 2020년 365명으로, 이는 대기업집단 사내이사 중 약 40% 내외의 보수가 공개된 것이다. 반면 비대기업집단 사내이사 중 보수가 공개된 임원은 2019년 564명, 2020년 593명으로 전체 비대기업집단 사내이사 중 약 9%에 불과하였다.

미등기임원이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하면서, 등기임원까지 포함하여 보수 순위를 메

겼을 때 상위 5명에 해당하여 개별보수가 공시된 사례는 대기업집단 2019년 332명, 2020년 345명, 비대기업집단 2019년 227명, 2020년 240명이었다. 이를 각 집단의 전체 미등기임원 수와 비교할 경우 대기업집단은 약 4%, 비대기업집단은 2%에 해당한다.

<표3> 대기업집단 기준 임원 보수 공시 현황 (2019년)

집단 구분	회사 수 (개사)			사내이사 수 (명)			미등기임원 수 (명)		
	전체	개별보수 공시	비율	전체	개별보수 공시	비율	전체	개별보수 공시	비율
대기업 집단	266	189	71%	835	327	39%	8,052	332	4%
비기업 집단	1,847	482	26%	6,298	564	9%	12,630	227	2%
소계	<b>2,113</b>	<b>671</b>	<b>32%</b>	<b>7,133</b>	<b>891</b>	<b>12%</b>	<b>20,682</b>	<b>559</b>	<b>3%</b>

<표4> 대기업집단 기준 임원 보수 공시 현황 (2020년)

집단 구분	회사 수 (개사)			사내이사 수 (명)			미등기임원 수 (명)		
	전체	개별보수 공시	비율	전체	개별보수 공시	비율	전체	개별보수 공시	비율
대기업 집단	280	185	66%	892	365	41%	8,135	345	4%
비기업 집단	1,874	507	27%	6,400	593	9%	12,955	240	2%
소계	<b>2,154</b>	<b>692</b>	<b>32%</b>	<b>7,292</b>	<b>958</b>	<b>13%</b>	<b>21,090</b>	<b>585</b>	<b>3%</b>

대기업집단별 사내이사 공시 현황은 <표5>와 같다. 자산규모 기준 상위권에 위치한 삼성, 에스케이, 엘지의 경우, 계열사에서 5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 내역을 공시한 등기임원의 수가 꾸준히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카카오, 네이버 등 IT기업이 공시

등기임원 비중에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반면, 두산, 롯데, 씨제이, 애경, 한국타이어 등에서는 그 비중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액보수 수령 임원 수 감소의 100% 원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중 두산그룹은 2020년 중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었고, 롯데그룹, 씨제이그룹은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유통, 외식, 영화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한국타이어그룹은 경영권 분쟁이 존재하였다. 현대백화점그룹은 SK바이오랜드 인수로 그룹 내 사내이사 수가 2019년도에 비해 높아지면서 개별보수 공시 사내이사 비율이 낮아졌다.

<표5> 대기업집단별 사내이사 보수 공시현황

(단위: 명)

기업집단	2019년			2020년		
	상장계열사 사내이사	개별보수 공시 수	개별보수 공시비율	상장계열사 사내이사	개별보수 공시 수	개별보수 공시비율
IMM 인베스트먼트	비대기업집단			2	-	-
교보생명보험	1	1	100%	2	1	50%
금호석화	3	1	33%	3	1	33%
금호아시아나	12	2	17%	9	3	33%
네이버	3	2	67%	3	2	67%
넥슨	6	-	-	6	1	17%
넷마블	2	2	100%	5	5	100%
농협	11	1	9%	13	1	8%
다우키움	24	2	8%	28	2	7%
대림	12	3	25%	12	4	33%
대우건설	3	1	33%	3	1	33%
대우조선해양	2	2	100%	3	-	-
동국제강	6	1	17%	7	2	29%
동원	9	1	11%	8	-	-
두산	21	10	48%	21	8	38%
디비	7	3	43%	8	3	38%
롯데	34	19	56%	32	15	47%
미래에셋	9	6	67%	8	5	63%

삼성	52	42	81%	55	57	104% <sup>1</sup>
삼양	비대기업집단			12	4	33%
삼천리	2	-	-	2	-	-
세아	15	1	7%	14	1	7%
셀트리온	9	4	44%	10	5	50%
신세계	21	12	57%	21	16	76%
씨제이	22	13	59%	22	11	50%
아모레퍼시픽	6	4	67%	6	4	67%
애경	19	5	26%	21	4	19%
에스엠	11	1	9%	8	1	13%
에스케이	57	21	37%	55	24	44%
에스-오일	5	1	20%	5	2	40%
에이치디씨	11	2	18%	14	2	14%
에이치엠엠	비대기업집단			2	-	-
엘에스	21	8	38%	20	9	45%
엘지	36	18	50%	36	21	58%
영풍	19	5	26%	18	4	22%
오씨아이	13	4	31%	14	4	29%
유진	10	2	20%	13	3	23%
이랜드	6	-	-	6	-	-
지에스	24	11	46%	31	12	39%
카카오	4	1	25%	7	6	86%
케이씨씨	9	4	44%	9	6	67%
케이지이	비대기업집단			14	-	-
케이티	39	5	13%	41	5	12%
케이티앤지	4	2	50%	4	2	50%
코오롱	19	4	21%	19	4	21%
태광	6	-	-	7	-	-
태영	15	2	13%	12	2	17%
포스코	19	11	58%	18	10	56%
하림	19	6	32%	19	7	37%
하이트진로	5	2	40%	4	1	25%
한국타이어	9	6	67%	7	3	43%

<sup>1</sup> 전체 사내이사 수에서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중 등기임원직에서 사임한 자의 수를 제외하였으나, 개별임원의 보수를 공시할 때는 기중 등기임원직에서 사임한 자 또한 포함하여 수치상 오류가 발생하였다. 예시로, 삼성카드의 2020년 사업보고서는 사내이사 수를 2명으로 공시하였으나, 개별이사의 보수는 기중에 등기임원직에서 사임한 3명을 포함하여 5명을 공시하였다.

한국투자금융	2	2	100%	2	2	100%
한라	11	4	36%	10	6	60%
한진	16	7	44%	16	4	25%
한화	22	10	45%	23	17	74%
현대백화점	29	11	38%	38	15	39%
현대자동차	43	32	74%	43	27	63%
현대중공업	13	4	31%	13	5	38%
호반건설	2	-	-	3	-	-
효성	25	3	12%	25	5	20%
총합계	835 명	327 명	39%	892 명	365 명	41%

### III. 5억원 이상 보수 수령 임원 대비 기타 임직원 보수 비교

#### 1. 상장 시장 기준 사내이사 보수 비교

<표6>와 <표7>에서는 분석대상 회사가 2019~2020년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전체 사내이사 수 및 보수총액, 개별보수를 공시한 사내이사 수 및 보수총액을 기초로 5억원 미만의 보수를 수령한 사내이사 수 및 보수총액을 역산하여 나타냈다.

전체 사내이사의 평균보수액은 약 3.2억원으로, 2019년과 2020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를 상장 시장 기준으로 구분하면 유가증권시장 5억원, 코스닥시장 2.2억원 수준으로, 상장 시장에 따라 사내이사의 평균보수에 약 2.2배의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별보수가 공시된 사내이사만 별도로 분석했을 때, 전체 사내이사의 평균보수액이 유사한 수준을 보인 것과는 달리 이들의 평균보수액은 13.8억원에서 14.1억원으로 2019년보다 증가하였다. 이를 상장 시장 기준으로 구분하게 될 경우 개별보수 공시 유가증권시장 사내이사의 평균보수는 15.4억원에서 15.6억원으로 소폭



증가, 코스닥시장의 경우 10.9억원에서 11.4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표6> 상장 시장 기준 사내이사 보수 현황 (2019년)

(단위 : 명, 백만원)

시장 구분	전체 사내이사			5억원 미만 사내이사			5억원 이상 사내이사		
	인원수	보수총액	평균	인원수	보수총액	평균	인원수	보수총액	평균
유가	2,537	1,259,641	497	1,952	360,709	185	585	898,932	1,537
코스닥	4,596	1,021,920	222	4,290	689,012	161	306	332,908	1,088
전체	<b>7,133</b>	<b>2,281,561</b>	<b>320</b>	<b>6,242</b>	<b>1,049,721</b>	<b>168</b>	<b>891</b>	<b>1,231,840</b>	<b>1,383</b>

<표7> 상장 시장 기준 사내이사 보수 현황 (2020년)

(단위 : 명, 백만원)

시장 구분	전체 사내이사			5억원 미만 사내이사			5억원 이상 사내이사		
	인원수	보수총액	평균	인원수	보수총액	평균	인원수	보수총액	평균
유가	2,575	1,295,206	503	1,954	328,470	168	621	966,736	1,557
코스닥	4,717	1,066,799	226	4,380	683,977	156	337	382,822	1,136
전체	<b>7,292</b>	<b>2,362,005</b>	<b>324</b>	<b>6,334</b>	<b>1,012,447</b>	<b>160</b>	<b>958</b>	<b>1,349,558</b>	<b>1,409</b>

## 2. 대기업집단 소속 기준 사내이사 보수 비교

<표8>과 <표9>에서는 앞에서 상장 시장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내용을 대기업집단 여부로 구분하여 반복하였다. 사내이사의 평균보수액을 대기업집단 여부로 구분하면, 대기업집단 사내이사는 평균 2019년 8억원, 2020년 8.4억원을, 비대기업집단 사내이사는 2019년, 2020년 둘 다 2.5억원대를 수령하였으나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대기업집단 여부에 따라 사내이사 평균보수액의 격차가 3배 넘게 차이남을 보여준다.

개별보수 공시 사내이사만 별도로 분석했을 때, 대기업집단 사내이사의 평균보수는 2019년 17억원에서 2020년 18.4억원으로 증가하지만, 비대기업집단 사내이사의 평균보수는 11.9억원에서 11.4억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앞서 개별보수가 공시된 사내이사의 평균보수가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증가하였는데, 특히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서의 보수 상승이 이와 같은 추세에 영향을 주었다고 확인할 수 있다.

<표8> 대기업집단 기준 사내이사 보수 현황 (2019년) (단위 : 명, 백만원)

집단 구분	전체 사내이사			5억원 미만 사내이사			5억원 이상 사내이사		
	인원수	보수총액	평균	인원수	보수총액	평균	인원수	보수총액	평균
대기업 집단	835	665,146	797	508	106,489	210	327	558,656	1,708
비기업 집단	6,298	1,616,415	257	5,734	943,232	164	564	673,183	1,194
전체	7,133	2,281,561	320	6,242	1,049,721	168	891	1,231,840	1,383

<표9> 대기업집단 기준 사내이사 보수 현황 (2020년) (단위 : 명, 백만원)

집단 구분	전체 사내이사			5억원 미만 사내이사			5억원 이상 사내이사		
	인원수	보수총액	평균	인원수	보수총액	평균	인원수	보수총액	평균
대기업 집단	892	748,601	839	527	76,876	146	365	671,725	1,840
비기업 집단	6,400	1,613,404	252	5,807	935,570	161	593	677,833	1,143
전체	7,292	2,362,005	324	6,334	1,012,447	160	958	1,349,558	1,409

### 3. 상장 시장 기준 미등기임원 보수 비교

<표10>와 <표11>에서는 분석대상 회사가 2019~2020년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전체 미

등기임원 수 및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하고 회사 내 상위 5명에 속하여 개별보수를 공시한 미등기임원 및 직원("고액 보수 수령 미등기임원") 수 및 보수총액을 분석하였다. 추가로, 고액 보수를 수령한 미등기임원 중에는 퇴직금,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인해 일회성으로 이에 해당하여 공시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일회성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일회성 급여를 제외했을 때 5억원 이상의 고액 보수를 수령한 미등기임원(<표10>, <표11> 중 (B))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전체 미등기임원의 평균보수액은 2억 3천만원대로 2019년보다 2020년에 소폭 증가하였다. 이를 상장 시장 기준으로 구분해도 유가증권시장 2019년 2.9억원, 2020년 3.06억원, 코스닥시장 2019년 1.2억원, 2020년 1.27억원으로 2년간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고액 보수 수령 미등기임원의 평균보수액은 2019년 13.6억원, 2020년 15.6억원으로 약 14.7% 증가하여 전체 미등기임원의 평균보수액을 비교했을 때보다 그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이를 상장 시장 기준으로 구분하면 유가증권시장 2019년 14.3억원, 2020년 16.2억원, 코스닥시장 2019년 10.3억원, 2020년 12.9억원 수준으로, 두 시장 다 고액 보수 수령 미등기임원의 평균보수액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미등기임원 대비 고액 보수 수령 미등기임원 보수격차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019년 4.9배에서 2020년 5.3배로 증가, 코스닥시장에서는 2019년 8.5배에서 10.1배로 증가하였다.

일회성 급여를 제외해도 고액 보수를 수령하는 미등기임원(<표10>, <표11> 중 (B))의 평균 보수액은 2019년 14.5억원, 2020년 17.4억원, 약 20% 증가하여 단순 고액 보수 수령 미등기임원보다도 더욱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를 상장 시장 기준으로 구분하면 유가증권시장 2019년 15.2억원, 2020년 18.7억원, 코스닥시장 2019년 10.6억원, 2020년

11.3억원으로 그 증가 추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 특히 뚜렷하다.

한편, 고액 보수 수령 미등기임원(표10, 표11의 (A))과 보수 중 퇴직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 일회성 요소를 제외해도 고액 보수를 수령하는 미등기임원(표10, 표11의 (B))의 평균 보수액을 비교할 경우, (B)-(A)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019년 0.9억원, 2020년 2.5억원, 코스닥시장에서는 2019년 0.3억원, 2020년 -1.7억원이다. 이 중 2020년 코스닥시장의 경우만 음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고액 보수 미등기임원 보수격차는 성과보다 퇴직금,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10> 상장 시장 기준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2019년)

(단위 : 명, 백만원)

시장 구분	전체 미등기임원			고액 보수 수령 미등기임원 (A)			일회성 요소 제외해도 고액 보수 미등기임원 (B)		
	인원수	보수총액	평균	인원수	보수총액	평균	인원수	보수총액	평균
유가	12,575	3,698,228	294	459	656,291	1,430	305	463,885	1,521
코스닥	8,107	975,929	120	100	102,584	1,026	59	62,368	1,057
전체	20,682	4,674,158	226	559	758,875	1,358	364	526,253	1,446

<표11> 상장 시장 기준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2020년)

(단위 : 명, 백만원)

시장 구분	전체 미등기임원			고액 보수 수령 미등기임원 (A)			일회성 요소 제외해도 고액 보수 미등기임원 (B)		
	인원수	보수총액	평균	인원수	보수총액	평균	인원수	보수총액	평균
유가	12,615	3,855,470	306	478	773,792	1,619	295	551,704	1,870
코스닥	8,475	1,080,139	127	107	138,088	1,291	63	70,832	1,124
전체	21,090	4,935,609	234	585	911,880	1,559	358	622,536	1,739

#### 4. 대기업집단 소속 기준 미등기임원 보수 비교

<표12>과 <표13>에서는 앞에서 상장 시장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내용을 대기업집단 여부로 구분하여 반복하였다. 미등기임원의 평균보수액을 대기업집단 여부로 구분하면, 대기업집단 미등기임원은 평균 2019년 3.6억원, 2020년 3.7억원을, 비대기업집단 미등기임원은 2019년, 2020년 둘 다 1.4억원대에 해당하고 소폭 증가하였다.

개별보수를 공시한 고액 보수 수령 미등기임원만 별도로 분석했을 때, 대기업집단 미등기임원의 평균보수는 14.3억원에서 16.9억원으로, 비대기업집단 미등기임원의 평균보수는 12.5억원에서 13.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미등기임원 대비 개별보수 공시 미등기임원 보수격차가 대기업집단에서는 2019년 4.0배에서 2020년 4.6배로, 비대기업집단에서는 2019년 8.8배에서 9.2배로 증가하였다.

앞서 일회성 급여를 제외해도 고액 보수를 수령하는 미등기임원의 평균 보수액이 단순 고액 보수 수령 미등기임원보다도 더욱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이를 대기업집단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대기업집단은 2019년 15억원에서 2020년 20억원으로 약 33.3% 증가하여 그 추세가 뚜렷하나, 비대기업집단은 2019년 13.7억원에서 2020년 13.9억원으로 약 1.6%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즉, 일회성 급여를 제외해도 고액 보수를 수령하는 미등기임원 평균 보수액의 가파른 증가 추세는 특히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이들에게 2020년 중 고액의 보수를 지급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표12> 대기업집단 기준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2019년)

(단위 : 명, 백만원)

집단 구분	전체 미등기임원			고액 보수 수령 미등기임원 (A)			일회성 요소 제외해도 고액 보수 미등기임원 (B)		
	인원수	보수총액	평균	인원수	보수총액	평균	인원수	보수총액	평균
대기업 집단	8,052	2,880,694	358	332	475,867	1,433	209	313,465	1,500
비기업 집단	12,630	1,793,464	142	227	283,007	1,247	155	212,788	1,373
전체	20,682	4,674,158	226	559	758,875	1,358	364	526,253	1,446

<표13> 대기업집단 기준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2020년)

(단위 : 명, 백만원)

집단 구분	전체 미등기임원			고액 보수 수령 미등기임원 (A)			일회성 요소 제외해도 고액 보수 미등기임원 (B)		
	인원수	보수총액	평균	인원수	보수총액	평균	인원수	보수총액	평균
대기업 집단	8,135	3,016,576	371	345	584,544	1,694	204	407,654	1,998
비기업 집단	12,955	1,919,033	148	240	327,336	1,364	154	214,882	1,395
전체	21,090	4,935,609	234	585	911,880	1,559	358	622,536	1,739

### 5. 5억원 이상 보수 수령 사내이사 대비 기타 임직원 간 보수 비교

<표14>과 <표15>는 분석대상 회사가 2019~2020년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등기임원, 미 등기임원, 5억원 이상 수령 임원의 보수와 직원의 보수를 비교한 것이다.

우선, 2019~2020년 대기업집단 계열사 직원의 평균보수는 7,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비대기업집단 계열사 직원의 평균보수는 5,7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큰 변화가 없다. 2019년~2020년 사내이사의 평균보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기업집단에서는 8억원에서 8.4억원으로 소폭 상승, 비대기업집단은 2.5억원대에서 소폭 감소하였다. 2019년

~2020년 미등기임원의 평균보수 역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기업집단에서는 3.6억원에서 3.7억원으로, 비대기업집단은 1.4억원대에서 소폭 증가하였다.

직원 평균급여 대비 격차를 년도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전체 사내이사와 전체 미등기임원에서는 대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019년, 2020년 둘 다 직원과 사내이사의 보수격차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우 약 10.2~10.4배, 비대기업집단은 약 4.3~4.5배, 마찬가지로, 직원과 미등기임원의 보수격차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우 약 4.6배, 비대기업집단은 약 2.5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보수내역이 공시된 세 집단(5억원 이상 수령하여 개별보수가 공시된 사내이사, 고액 보수 미등기임원, 일회성 요소를 제외해도 고액 보수를 수령하는 미등기임원)에서는 2019년, 2020년의 차이가 존재하는 편이다. 비대기업집단에서 5억원 이상 수령하는 사내이사의 경우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평균급여가 소폭 감소하여 직원 평균급여 대비 격차도 21.1배에서 19.6배로 소폭 감소하였다. 그 외 집단에서는 다 2019년보다 2020년의 격차가 더 큰데,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일회성 요소를 제외해도 고액 보수를 수령하는 미등기임원의 경우 직원 평균급여 대비 격차가 19.2배에서 24.8배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직원 평균급여 대비 격차를 대규모기업집단 여부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사내이사, 미등기임원에서 모두 대기업집단이 비대기업집단보다 두 배 내외 더 큰 격차가 발생하므로 직원 간 임금격차가 대기업집단에서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직원 평균급여 대비 사내

이사의 평균급여의 경우 비대기업집단에서는 4.5배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는데 대기업집단에서는 10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여 대기업집단이 비대기업집단에 비해 두 배 이상 그 격차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미등기임원에서도 유사하게 직원 평균급여와의 격차가 비대기업집단에서는 2.5배 정도, 대기업집단에서는 4.6배 정도 발생한다.

<표14> 5억원 이상 보수 수령 사내이사와 직원 보수 현황(2019년)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대규모기업집단				비대기업집단			
	인원수	총급여	평균 급여	직원평균 급여대비	인원수	총급여	평균 급여	직원평균 급여대비
직원	967,523	75,670,241	78		644,347	36,456,942	57	
사내이사	835	665,146	797	10.19 배	6,298	1,616,415	257	4.54 배
미등기임원	8,052	2,880,694	358	4.57 배	12,630	1,793,464	142	2.51 배
5억원 이상 사내이사	327	558,656	1,708	21.84 배	564	673,183	1,194	21.10 배
고액보수 미등기임원	332	475,867	1,433	18.33 배	227	283,007	1,247	22.03 배
표 12 의 (B)	209	313,465	1,500	19.18 배	155	212,788	1,373	24.26 배

<표15> 5억원 이상 보수 수령 사내이사와 직원 보수 현황(2020년)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대규모기업집단				비대기업집단			
	인원수	총급여	평균 급여	직원평균 급여대비	인원수	총급여	평균 급여	직원평균 급여대비
직원	962,589	77,481,416	80		625,967	36,559,511	58	
사내이사	892	748,601	839	10.43 배	6,400	1,613,404	252	4.32 배
미등기임원	8,135	3,016,576	371	4.61 배	12,955	1,919,033	148	2.54 배
5억원 이상 사내이사	365	671,725	1,840	22.86 배	593	677,833	1,143	19.57 배
고액보수 미등기임원	345	584,544	1,694	21.05 배	240	327,336	1,364	23.35 배
표 13 의 (B)	204	407,654	1,998	24.83 배	154	214,882	1,395	23.89 배



<표16>과 <표17>은 2019~2020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임원 중 직원 평균보수와 격차가 가장 큰 상위 30명의 현황이다. 비교가능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표16>와 <표17>에서의 보수는 퇴직금, 주식매수선택권 등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였다.

직원 평균보수와 격차가 큰 개별보수 공시 상위 30명의 임원을 지배주주일가와 전문경영인의 두 그룹으로 분류했을 때 지배주주일가가 2019년 27명, 2020년 21명으로 지배주주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상위 30명의 임원 중 등기이사는 2019년 19명, 2020년 21명으로, 등기되어 있는 이사의 비중이 더 높은 편이고, 이들 중 대기업집단 계열사 소속은 2019년 20명, 2020년 19명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 소속의 비중이 더 높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는 측면에서는 전문경영인의 비중이 높은 편이, 주주총회 등에서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등기이사의 비중이 높은 편이 긍정적으로 판단되는데, 2019년보다는 2020년이 이와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 2019, 2020년 모두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이사의 보수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2020년에는 184억원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이는 2019년에 지급받은 보수인 94.5억원의 2배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이다. 엔씨소프트는 2020년의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주가가 전년대비 각각 42%, 72%, 62%, 63%, 72% 상승한 것을 근거로 2021년의 이사 보수한도를 2020년과 동일한 수준인 20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공시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회사가 김택진 대표이사에게 고액 보수를 지급한 이유를 일부 추측해볼 수 있다.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직원과 보수격차 상위 30명 내에 속한 임원은 20명으로 대기업 소속 12명, 비대기업 소속이 8명이다. 이 중 지배주주가 아닌 임원은 에스케이 조대식과 서호전기 김승남 뿐이며, 나머지 18명은 모두 지배주주 일가이다. 특히 김택진과 손경식, 이부진은 2년 연속 직원과 보수격차 상위 30인에 속하면서, 2020년에는 직원과 보수격차가 가장 큰 1~3순위를 차지했다. 또 엘에스그룹은 지배주주 일가가 3명(구자균, 구자용, 구자열)이 핵심 계열사 3개에서 직원과 격차가 큰 보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세계그룹 지배주주인 정용진, 이명희, 정재은은 계열사 이마트 직원 평균보수 39백만원보다 각각 86배, 69배 많은 보수를 수령하여 보수격차 상위 30명 안에 포함되었다.

<표16> 2019년 임원 대비 직원 간 보수격차 상위 30명

(단위 : 백만원, 배)

회사명	대기업 집단여부	성명	등기 여부	지배주주	보수총액	직원 평균보수	격차
엔씨소프트	그외	김택진	등기	지배주주	9,450	86	109
이마트	대기업	정용진	미등기	지배주주	3,562	37	96
에스케이네트웍스	대기업	최신원	등기	지배주주	5,253	55	95
이마트	대기업	이명희	미등기	지배주주	2,934	37	79
이마트	대기업	정재은	미등기	지배주주	2,934	37	79
씨제이제일제당	대기업	손경식	등기	지배주주	3,556	56	64
이원	대기업	구자용	등기	지배주주	5,968	94	63
비에이치	그외	이경환	등기	지배주주	3,465	55	63
현대백화점	대기업	정지선	등기	지배주주	3,545	59	60
지에스건설	대기업	허창수	등기	지배주주	5,521	93	59
휴니드테크놀러지스	그외	김유진	미등기	지배주주	3,504	60	58
한솔케미칼	그외	조동혁	미등기	지배주주	4,427	81	55
호텔신라	대기업	이부진	등기	지배주주	3,206	59	54
금호석유화학	대기업	박찬구	등기	지배주주	5,072	94	54
LS 일렉트릭	대기업	구자균	등기	지배주주	4,037	75	54
풍산	그외	류진	등기	지배주주	3,750	70	54
씨제이이엔엠	대기업	이미경	미등기	지배주주	3,657	68	54
신세계	대기업	정유경	미등기	지배주주	3,114	59	53
씨제이이엔엠	대기업	이재현	미등기	지배주주	3,476	68	51

효성	대기업	조현준	등기	지배주주	4,517	89	51
에스케이	대기업	조대식	등기		4,660	92	51
롯데쇼핑	대기업	신동빈	등기	지배주주	2,214	44	51
씨제이제일제당	대기업	이재현	미등기	지배주주	2,800	56	50
에스티큐브	그외	정현진	등기	지배주주	1,750	35	50
파라다이스	그외	전필립	등기	지배주주	3,174	66	48
리드코프	그외	서홍민	미등기	지배주주	1,971	41	48
서호전기	그외	김승남	등기		2,694	56	48
한솔제지	그외	조동길	미등기	지배주주	3,399	71	48
엘지생활건강	대기업	차석용	등기		3,337	71	47
엘에스	대기업	구자열	등기	지배주주	5,252	112	47

<표17> 2020년 임원 대비 직원 간 보수격차 상위 30명

(단위 : 백만원, 배)

회사명	대기업 집단여부	성명	등기 여부	지배주주	보수총액	직원 평균보수	격차
엔씨소프트	그외	김택진	등기	지배주주	18,414	105	175
씨제이제일제당	대기업	손경식	등기	지배주주	10,221	64	160
호텔신라	대기업	이부진	등기	지배주주	4,892	50	98
서호전기	그외	김승남	등기		3,152	35	89
이마트	대기업	정용진	미등기	지배주주	3,368	39	86
에스케이네트웍스	대기업	최신원	등기	지배주주	5,260	64	83
LS 일렉트릭	대기업	구자균	등기	지배주주	5,493	74	74
이원	대기업	구자용	등기	지배주주	7,922	107	74
에스에프에이반도체	그외	김영민	등기		3,661	50	73
이마트	대기업	정재은	미등기	지배주주	2,693	39	69
이마트	대기업	이명희	미등기	지배주주	2,693	39	69
옵트론텍	그외	홍사관	등기		2,306	34	67
리드코프	그외	서홍민	미등기	지배주주	2,897	43	67
삼성전자	대기업	김기남	등기		8,274	127	65
비에이치	그외	이경환	등기	지배주주	2,450	38	64
한솔케미칼	그외	조동혁	등기	지배주주	5,577	87	64
엘에스	대기업	구자열	등기	지배주주	7,715	123	63
삼성전자	대기업	권오현	미등기		7,943	127	63
에스케이텔레콤	대기업	박정호	등기		7,380	121	61
현대백화점	대기업	정지선	등기	지배주주	3,527	60	59
에스케이	대기업	조대식	등기		5,452	96	57

해태제과식품	그외	윤영달	미등기	지배주주	2,794	51	55
휴니드테크놀러지스	그외	김유진	미등기	지배주주	3,597	65	55
효성	대기업	조현준	등기	지배주주	4,641	85	55
하이트진로	대기업	박문덕	미등기	지배주주	5,380	100	54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대기업	조양래	미등기	지배주주	3,972	74	54
이마트	대기업	강희석	등기		2,092	39	54
풍산	그외	류진	등기	지배주주	3,885	73	53
파라다이스	그외	전필립	등기	지배주주	2,762	52	53
삼성전자	대기업	고동진	등기		6,712	127	53

#### IV. 5억원 이상 보수 수령 임직원 현황

5억원 이상 고액보수를 수령하는 임직원을 대기업집단 및 비대기업집단 소속,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진,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으로 구분하여 평균보수를 확인해 보면 <표18> 및 <표19>와 같다.

대기업집단 내 지배주주 여부에 따라, 그리고 지배주주 중 대기업집단 여부에 따라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대기업집단 내 지배주주 여부에 따라 최소 1.6배(2020년 대기업집단 등기임원의 지배주주 여부)에서 최대 2.5배(2019년 대기업집단 등기임원의 지배주주 여부)까지 차이가 발생하였다. 지배주주 중 대기업집단 여부에 따라서는 최소 1.6배(2019년 지배주주 미등기임직원의 대기업집단 여부)에서 최대 3배(2019년 지배주주 등기임원 중 대기업집단 여부)까지 차이가 발생하였다.

한편, 2019년 비대기업집단의 등기 전문경영인에서는 예외가 다수 발생했는데, 이들은 동년 비대기업집단의 미등기 전문경영인, 등기 지배주주일가, 대기업집단의 등기 전문경영인보다도 많은 평균보수를 수령하였다. 이는 2019년 중 클래시스의 김동석 상무가

214.45억원, 드림텍의 김영호 이사가 105.02억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거둬 이와 같은 데이터가 평균보수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18> 개별보수 공시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 평균보수 현황(2019년)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대기업집단			비대기업집단			차이액 (백만원)	격차 (배)
		인원수	총금액	평균금액	인원수	총금액	평균금액		
등기 임원	지배주주	75	235,859	3,145	332	348,800	1,051	2,094	3.0
	전문경영인	252	322,797	1,281	232	324,383	1,398	(117)	0.9
	소계	327	558,656	1,708	564	673,183	1,194	515	1.4
	차이			1,864			(348)		
	격차			2.5			0.8		
미등기 임직원	지배주주	33	77,539	2,350	67	96,364	1,438	911	1.6
	전문경영인	299	398,328	1,332	160	186,643	1,167	166	1.1
	소계	332	475,867	1,433	227	283,007	1,247	187	1.1
	차이			1,017			272		
	격차			1.8			1.2		

<표19> 개별보수 공시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 평균보수 현황(2020년)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대기업집단			비대기업집단			차이액 (백만원)	격차 (배)
		인원수	총금액	평균금액	인원수	총금액	평균금액		
등기 임원	지배주주	79	208,407	2,638	367	415,311	1,132	1,506	2.3
	전문경영인	286	463,318	1,620	226	262,522	1,162	458	1.4
	소계	365	671,725	1,840	593	677,833	1,143	697	1.6
	차이			1,018			(30)		
	격차			1.6			1.0		
미등기 임직원	지배주주	37	108,378	2,929	68	117,802	1,732	1,197	1.7
	전문경영인	308	476,166	1,546	172	209,534	1,218	328	1.3
	소계	345	584,544	1,694	240	327,336	1,364	330	1.2
	차이			1,383			514		
	격차			1.9			1.4		

분석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자 <표20> 및 <표21>은 주식매수선택권, 퇴직금 등 일회성 보수를 제외한 금액으로도 분석하였는데, 1) 비대기업집단보다는 대기업집단에서, 2) 미등기임원보다는 등기임원이, 3) 전문경영인보다는 지배주주일가가 주로 더 높은 평균보수를 지급받음을 알 수 있었다.

<표20> 개별보수 공시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 평균보수 현황(2019년) - 일회성 보수 제외

구분		대기업집단			비대기업집단			차이액 (백만원)	격차 (배)
		인원수	총금액	평균금액	인원수	총금액	평균금액		
등기 임원	지배주주	75	159,680	2,129	332	336,989	1,015	1,114	2.1
	전문경영인	252	263,058	1,044	232	158,793	684	359	1.5
	소계	327	422,737	1,293	564	495,782	879	414	1.5
	차이			1,085			331		
	격차			2.0			1.5		
미등기 임직원	지배주주	33	65,867	1,996	67	84,720	1,264	731	1.6
	전문경영인	299	219,602	734	160	102,347	640	95	1.1
	소계	332	285,469	860	227	187,067	824	36	1.0
	차이			1,262			625		
	격차			2.7			2.0		

<표21> 개별보수 공시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 평균보수 현황(2020년) - 일회성 보수 제외

구분		대기업집단			비대기업집단			차이액 (백만원)	격차 (배)
		인원수	총금액	평균금액	인원수	총금액	평균금액		
등기 임원	지배주주	79	179,876	2,277	367	384,718	1,048	1,229	2.2
	전문경영인	286	334,289	1,169	226	168,784	747	422	1.6
	소계	365	514,165	1,409	593	553,503	933	475	1.5
	차이			1,108			301		
	격차			1.9			1.4		
미등기 임직원	지배주주	37	74,610	2,016	68	81,871	1,204	813	1.7
	전문경영인	308	235,766	765	172	129,218	751	14	1.0
	소계	345	310,376	900	240	211,089	880	20	1.0
	차이			1,251			453		
	격차			2.6			1.6		

## V. 대기업집단 5억원 이상 보수 수령 임직원 현황

### 1. 대기업집단 5억원 이상 수령 임직원과 기타 임직원의 보수 격차

<표22>은 등기와 미등기 구분 없이 대기업집단 계열사별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임직원과 사업보고서 공시 상의 직원, 사내이사, 미등기임원의 평균보수와 격차를 비교한 것이다.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아 자세한 보수 내역이 공시된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 퇴직금 등 일회성 요소를 제외한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019~2020년 고액보수 임직원과 그 외의 격차가 큰 기업집단은 금호석화, 네이버, 동국제강, 엘에스, 한국타이어, 효성그룹 등 존재한다. 이 중 특히 지배주주로 인해 그 격차가 크게 발생하여 눈여겨보아야 하는 그룹을 예로 들면, 금호석화그룹은 박찬구 회장이 50억원 가량의 보수를 수령하고 그 외 임원들은 이에 전혀 근접하지 않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동국제강그룹의 경우 장세주 회장, 장세욱 부회장이 각각 2019년 25억원, 20억원, 2020년 41억원, 33억원 가량을 수령하여 그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이 둘이 유일한 5억원 이상 수령 임직원이었다. 장세주 회장은 회사자금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2016년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2015년 대표이사(등기임원)를 사임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미등기임원으로서 고액의 보수를 수령해왔다는 사실이 2018년 이후 확인되었다. 엘에스그룹은 구자용 회장, 구자열 회장, 구자균 회장의 급여가 2019년에는 40~60억원대, 2020년에는 55~80억원대로 형성되어 있어 그 외 임직원들과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타이어그룹은 조양래 회장, 조현식 부회장, 조현범 사장, 효성그룹은 조현준 대표이사,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상 부회장의 급여가 격차를 크게 발생시키고 있다.

<표22> 대기업집단 직원, 사내이사, 미등기임원, 고액보수임직원 등 평균보수 현황

기업집단	2019년					2020년				
	직원	사내이사	미등기임원	고액보수 수령*		직원	사내이사	미등기임원	고액보수 수령*	
				사내이사	미등기임직원				사내이사	미등기임직원
IMM 인베스트먼트	비대기업집단					34	146	75	없음	
교보생명보험	120	1,125	495	1,124	1,103	133	1,017	567	1,654	1,394
금호석화	94	2,979	287	5,072	544	101	2,006	316	5,177	638
금호아시아나	64	559	178	542	179	49	474	148	246	130
네이버	87	1,489	354	2,159	1,290	95	2,022	383	2,960	2,252
넥슨	59	181	206	없음		74	252	246	752	662
넷마블	98	693	548	1,287	409	55	830	398	1,037	223
농협	112	221	307	1,560	684	118	168	352	1,283	904
다우키움	64	201	175	816	710	71	188	204	841	795
대림	80	496	249	1,105	641	84	648	252	1,164	1,875
대우건설	82	352	211	738	없음	82	397	214	724	없음
대우조선해양	72	1,328	141	752	없음	72	343	161	없음	
동국제강	67	556	261	2,017	2,495	77	760	375	1,958	2,180
동원	50	268	160	513	749	51	292	188	없음	1,009
두산	76	968	300	1,676	1,268	79	380	224	618	336
디비	73	598	249	949	999	75	840	277	1,669	1,010
롯데	49	856	276	1,217	480	52	890	256	1,082	484
미래에셋	101	901	288	1,162	1,554	118	1,253	331	1,589	2,378
삼성	96	1,281	500	1,452	1,199	107	2,647	579	1,909	1,561
삼양	비대기업집단					72	640	208	1,548	495
삼천리	88	437	241	없음	725	88	467	226	없음	571
세아	76	319	187	628	283	78	320	214	645	없음
셀트리온	64	634	225	845	199	75	1,665	267	1,848	138
신세계	40	849	487	926	1,799	42	969	544	887	1,457
씨제이	41	1,048	394	1,244	1,882	56	1,262	443	2,046	1,715
아모레퍼시픽	70	1,113	251	1,438	360	62	1,163	207	889	312
애경	56	457	211	1,006	465	49	460	200	885	없음
에스엠	63	216	115	606	없음	61	309	100	231	없음
에스케이	104	828	486	1,950	967	93	998	483	2,187	1,037
에쓰-오일	110	297	273	339	264	109	178	255	362	125
에이치디씨	68	484	199	1,560	1,170	74	396	289	1,529	1,796



에이치엠엠	비대기업집단					62	432	148	없음	
엘에스	74	1,051	343	2,558	697	75	1,507	376	3,146	623
엘지	80	1,402	414	1,614	759	80	1,343	417	1,635	515
영풍	62	443	204	866	1,716	58	409	205	1,121	1,774
오씨아이	68	491	189	1,196	369	72	513	180	1,276	110
유진	74	442	290	1,366	1,256	84	396	298	1,260	1,479
이랜드	38	68	74	없음		39	54	150	없음	
지에스	52	893	509	1,840	828	56	1,327	426	1,644	809
카카오 <sup>2</sup>	82	770	없음	810	373	101	1,842	없음	1,393	202
케이씨씨	66	1,095	224	1,939	1,144	67	897	248	1,724	1,006
케이지이	비대기업집단					61	223	125	없음	
케이티	60	170	317	870	892	60	302	289	722	없음
케이티앤지	78	544	245	930	276	85	580	274	940	251
코오롱	64	364	245	382	346	68	326	244	481	322
태광	63	204	163	없음	613	63	181	164	없음	680
태영	88	308	278	1,060	1,164	94	332	278	1,080	1,170
포스코	90	670	473	718	284	92	785	526	976	418
하림	54	355	129	564	없음	59	397	146	590	없음
하이트진로	96	808	327	439	1,377	100	294	335	582	1,120
한국타이어	71	568	254	729	2,057	74	1,021	302	2,232	1,717
한국투자금융	157	639	359	639	523	148	705	273	705	441
한라	87	1,047	269	1,639	306	85	1,001	230	1,230	없음
한진	74	4,626	192	968	528	64	574	165	835	240
한화	79	760	238	750	427	78	555	222	560	440
현대백화점	47	968	295	1,321	935	49	658	275	1,184	599
현대자동차	90	955	356	1,128	787	88	1,075	336	990	757
현대중공업	75	371	254	673	432	72	345	209	574	397
호반건설	25	33	없음			26	45	없음		
효성	49	485	209	2,519	1,421	50	486	195	1,791	1,769

\* 일회성 보수(퇴직금, 주식매수선택권이익) 제외

<sup>2</sup> 카카오는 등기임원 외에 별도의 미등기임원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 2. 5억원 이상 보수 수령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현황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는 비대기업집단 지배주주나 전문경영인에 비해 평균보수가 높으며, 여러 회사에서 수령하는 경우도 많아 분석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표23>은 대기업집단별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임직원을 지배주주 또는 전문경영인으로 분류하여 평균보수를 산출한 후 비교하였다. 평균보수를 산출할 때 분자의 보수 합계는 주식매수선택권, 퇴직금 등 일회성 요소를 제외한 값을 사용하였고, 분모의 인원수는 동일한 사람이 기업집단 내 여러 회사에서 5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하였을 경우 중복된 값을 제거하였다. 가령, 케이씨씨그룹은 2019년 중 기업집단 내 5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한 이사가 총 7건 공시되어 있는데, 이는 정상영 3건, 정몽익 2건, 정몽진, 정몽열 각 1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모에는 7이 아닌 중복된 값을 제거한 4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의 격차가 5배 이상 차이나는 기업집단은 2019년 9개, 2020년 13개였으며, 최대 33.6배(2020년 하이트진로)까지 차이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10배 이상 격차를 보인 기업집단들은 단일 지배주주가 복수의 계열사에서 보수를 수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 내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유일한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5개의 계열사에서 2019년 123억원, 2020년 112억원을 수령하여 전문경영인과 19배, 22.9배의 격차를 보였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한라 정몽원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이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고,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경우 단일 계열사에서만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전문경영인 평균보수보다 33.6배 많은 보수를 수령하였다.

<표23> 대기업집단별 5억원 이상 수령 지배주주 및 전문경영인 평균보수 (단위 : 백만원)

기업집단	2019 년			2020 년		
	지배주주 평균보수	전문경영인 평균보수	격차(배)	지배주주 평균보수	전문경영인 평균보수	격차(배)
하이트진로	3,266	436	7.5	5,380	160	33.6
롯데	12,271	645	19	11,231	490	22.9
셀트리온	917	295	3.1	6,942	327	21.2
한진	3,674	384	9.6	3,098	200	15.5
엘지	3,829	948	4	8,008	817	9.8
동국제강	2,256	-	-	3,710	428	8.7
금호석화	5,072	544	9.3	5,177	638	8.1
씨제이	6,558	1,038	6.3	8,525	1,108	7.7
넷마블	1,386	737	1.9	2,996	392	7.6
엘에스	4,229	805	5.3	5,741	783	7.3
케이씨씨	2,797	-	-	3,180	550	5.8
한라	6,029	334	18	3,106	584	5.3
애경	1,603	573	2.8	1,484	287	5.2
아모레퍼시픽	3,700	550	6.7	2,231	487	4.6
신세계	3,710	891	4.2	3,559	793	4.5
효성	3,352	796	4.2	3,632	842	4.3
한국타이어	1,645	374	4.4	3,177	773	4.1
하림	1,637	582	2.8	2,307	608	3.8
에스케이	4,685	1,221	3.8	5,137	1,415	3.6
현대백화점	3,079	1,024	3	3,177	923	3.4
현대자동차	3,281	788	4.2	2,446	744	3.3
대림	-	873	-	3,250	1,031	3.2
삼양	1,643	1,621	1	1,548	495	3.1
지에스	2,800	836	3.4	2,570	886	2.9
삼성	3,206	1,310	2.4	4,892	1,736	2.8
오씨아이	1,328	601	2.2	1,426	516	2.8
두산	2,287	1,269	1.8	929	443	2.1
금호아시아나	1,382	59	23.4	225	157	1.4
다우키움	1,091	654	1.7	1,066	759	1.4
한화	-	535	-	677	493	1.4
삼천리	933	516	1.8	630	511	1.2
영풍	1,314	595	2.2	1,377	1,147	1.2
태영	1,160	964	1.2	1,170	990	1.2

한국투자금융	592	564	1	554	579	1
디비	-	977	-	1,104	1,371	0.8
유진	1,286	1,283	1	1,239	1,489	0.8
네이버	1,237	1,738	0.7	1,975	2,675	0.7
카카오	-	460	-	533	821	0.6

\* 보수총액에서 퇴직금, 주식매수선택권 등 일회성 보수 제외

\*\* 2019년, 2020년 연속으로 지배주주 또는 전문경영인이 없어 둘의 비교가 불가능한 기업집단의 기록은 삭제하였음

<표24>은 2019년과 2020년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중 한 해라도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고 총 40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자의 최근 2년 보수 현황이다. 등기임원 개별보수가 공시된 후 지속적으로 최상위 보수를 수령한 대기업집단 지배주주는 씨제이그룹 손경식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효성그룹 지배주주 일가 등이다.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는 2019년까지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중 많은 보수를 받은 편에 해당하였고, 특히 사내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이 공시된 이후에는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음이 공개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던 중, 2020년 현대차 등기이사를 사임하고 미등기임원인 명예회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수 수준이 24.7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 3월에는 현대모비스 등기이사로도 재선임되지 않았다. 향후 보수는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정몽구 명예회장을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의 회장이 된 정의선은 2019년 52억원, 2020년 60억원의 보수를 수령하였다.

씨제이그룹 손경식은 씨제이제일제당 1개사로부터만 보수를 받지만 2015년~2016년 단기인센티브로 약 50 억원을 수령, 전체 보수총액이 80 억원을 초과하여 대기업집단 개별 보수 공시 지배주주 중에서 최상위를 차지했다. 2018 년 역시 특별상여 명목으로 지급된

50.3억원을 포함하여 약 89억원의 보수를 수령, 2020년에도 약 102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수령하였다.

롯데그룹 신동빈은 뇌물 제공 등 불법행위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3개 계열사에서 63.8억원, 2017년 4개 계열사에서 98.3억원, 2018년부터 2020년에는 5개 계열사에서 58억원, 123억원, 112억원대의 고액보수를 수령하였다. 2018년의 경우 다른 년도에 비해 보수를 적게 수령하였는데, 이는 공시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되었던 기간인 3월부터 9월까지의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동빈은 5개 상장 계열사 등기임원을 장기간 유지했으나, 2020년 롯데쇼핑과 롯데칠성음료의 등기이사로 재선임되지 않고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위 두 계열사의 보수는 2019년 대비 2020년 각각 0.66배, 0.67배로 감소하였다.

효성그룹 지배주주 일가 조석래, 조현준, 조현상은 고액보수 공시 이후 지속적으로 (주)효성에서 5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해 왔다. 2017년 7월까지의 조석래 당시 회장의 보수가 가장 많았으나, 이사직 사임 후 명예회장으로 전환하면서 보수가 일부 감소하고, 조현준 회장의 보수가 총 40억원대로 증가하였다. 한편, 조석래 명예회장은 명예회장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251억원의 퇴직금을 2020년 중에 수령하였다.

에스케이그룹 최태원은 배임 등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등기임원을 사임하고 미등기임원만을 유지하여 개별보수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2016년 에스케이 등기이사에 복귀하며 15.75억원을 공시했으며, 2017년에는 5억원 증가한 20억원의 보

수를 공시했다. 2018년 미등기임원의 고액보수 공시의무로 인해 에스케이하이닉스 보수 30억원을 새롭게 공시하여 2개 계열사에서 총 60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9년, 2020년에도 이어서 총 60억원, 63억원을 수령하였다.

이외에도 씨제이그룹 이재현과 신세계그룹 이명희, 정재은은 미등기임원직을 유지하며 고액의 보수를 수령하고 있다. 씨제이그룹 지배주주인 이재현은 형사재판 유죄 확정 후 사면되었으나 등기임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채 미등기임원직을 유지하여 2017년까지 개별보수가 공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시에 의하면 지주회사 씨제이와 씨제이제일제당, 씨제이이엔엠에서 총합 2018년 160억원, 2019년 125억원, 2020년 124억원대의 보수를 수령하여 등기, 미등기임원을 망라하여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씨제이에서만 매년 60~70억원대의 고액보수를 수령하고 있으며, 씨제이제일제당은 지배주주 일가인 이재현과 손경식 두 사람에게만 2020년 총 130억원대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그룹 지배주주인 이명희와 정재은은 회장, 명예회장 등 미등기임원으로 2017년까지 보수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40억원대의 보수를 수령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이마트와 신세계, 두 개 계열사에서 정확히 동일한 금액의 보수를 받고 있다.

<표24> 40억원 이상 수령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일가 2019~2020년 보수내역 - 일회성 보수 제외

기업집단	이름	2019년			2020년		
		보수총액	계열회사	보수	보수총액	계열회사	보수
씨제이	이재현	12,462	씨제이이엔엠	3,476	12,379	씨제이이엔엠	2,862
			씨제이제일제당	2,800		씨제이제일제당	2,800
			씨제이	6,186		씨제이	6,717
롯데	신동빈	12,271	롯데케미칼	4,113	11,230	롯데케미칼	3,500
			롯데제과	2,178		롯데제과	1,900
			롯데쇼핑	2,214		롯데쇼핑	1,313
			롯데지주	2,072		롯데지주	3,517
			롯데칠성음료	1,694		롯데칠성음료	1,000
지에스	허창수	9,041	지에스건설	5,521	7,358	지에스건설	4,525
			지에스	3,520		지에스	2,833
한라	정몽원	6,029	만도	3,248	5,662	만도	2,734
			한라홀딩스	1,792		한라홀딩스	1,533
			한라	989		한라	1,395
에스케이	최태원	6,000	SK	3,000	6,300	SK	3,300
			SK 하이닉스	3,000		SK 하이닉스	3,000
엘에스	구자용	5,968	E1	5,968	7,922	E1	7,922
엘지	구광모	5,396	엘지	5,396	8,008	엘지	8,008
에스케이	최신원	5,253	SK 네트웍스	5,253	5,260	SK 네트웍스	5,260
엘에스	구자열	5,252	엘에스	5,252	7,715	엘에스	7,715
현대자동차	정의선	5,189	현대자동차	3,402	5,980	현대자동차	4,008
			현대모비스	1,787		현대모비스	1,972
금호석화	박찬구	5,072	금호석유화학	5,072	5,177	금호석유화학	5,177
효성	조현준	4,517	효성	4,517	5,284	효성	4,641
						효성아이티엑스	643
엘에스	구자균	4,037	LS 일렉트릭	4,037	5,493	LS 일렉트릭	5,493
씨제이	손경식	3,556	씨제이제일제당	3,556	10,221	씨제이제일제당	10,221
현대자동차	정몽구	7,040	현대자동차	4,180	2,466	현대모비스	1,734
			현대모비스	2,860		현대자동차	732
셀트리온	서정진	1,412	셀트리온	1,412	6,942	셀트리온	3,186
						셀트리온헬스케어	3,756
한진	조양호	5,454	한국공항	1,135		사망	
			대한항공	1,599			
			진에어	924			
하이트진로	박문덕	3,266	하이트진로	3,266	5,380	하이트진로	5,380

삼성	이부진	3,206	호텔신라	3,206	4,892	호텔신라	4,892
에이치디씨	정몽규	4,289	HDC	2,276	4,854	HDC	2,203
			HDC 현대산업개발	1,170		HDC 현대산업개발	1,796
			HDC 현대 EP	843		HDC 현대 EP	855
동국제강	장세주	2,495	동국제강	2,495	4,101	동국제강	4,101
신세계	이명희	4,081	신세계	1,147	3,954	신세계	1,261
			이마트	2,934		이마트	2,693
신세계	정재은	4,081	신세계	1,147	3,954	신세계	1,261
			이마트	2,934		이마트	2,693
케이씨씨	정몽익	3,926	케이씨씨	1,641	5,192	케이씨씨	885
			코리아오토글라스	2,285		코리아오토글라스	4,307

### 3. 대기업집단별 고액보수 최상위자 현황

<표25>과 <표26>는 대기업집단 내 최상위 보수수령자가 지배주주일 경우만 종합하여, 전문경영인 중 최상위 보수수령자와의 격차를 비교하였다. 분석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퇴직금 등 일시금을 제외한 보수를 사용하여 보수격차가 실제보다 크게 계산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2019년, 2020년 전체 50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상위 보수수령자가 지배주주일가에 속하는 경우는 60% 가량 차지하였고, 이에 따라 40% 정도 최상위 보수수령자가 전문경영인에 해당했다. 최상위, 차상위 보수수령자 중 한 명이라도 전문경영인이 존재하는 경우의 비율은 60~70%정도 차지하는데, 5순위 넘게 전문경영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10% 정도 존재하였다.

대기업집단 내 5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한 임직원이 지배주주일가밖에 없어서 비교가 불가했던 기업집단은 2019년 동국제강, 에이치디씨, 케이씨씨, 태광, 2020년 에이치디씨, 태



광이었다. 동국제강은 장세주 회장, 장세욱 부회장이 2019년 중 각 25억원, 20억원 가량 수령하는 동안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하는 그 외 임직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2020년에는 이 둘이 각 41억원, 33억원 가량 수령하는 동안 김연극 사장이 6억원 가량을 수령하여 최상위 지배주주와의 격차가 약 6.9배 정도 발생했다. 에이치디씨는 정몽규 회장이 기업집단 내 유일한 5억원 이상 보수 수령자로 계열사에서 총 2019년 43억원, 2020년 31억원을 수령하였다. 케이씨씨는 2019년 중 정몽익, 정몽진, 정몽열, 정상영 등이 총 112억원을 계열사로부터 수령하는 동안 전문경영인이 5억원 이상 수령하는 사례가 없었고, 2020년에는 위 4인이 총 127억원을 계열사로부터 수령하면서 7순위까지 차지한 후 8순위에 케이씨씨글라스의 주원식 부회장이 5억원 5,600만원을 수령하였다.

그 외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의 보수 격차가 비교가능한 기업집단 중 격차가 큰 기업집단은 금호석화, 롯데, 씨제이, 엘에스, 한라, 삼양, 애경, 하이트진로, 한진 등이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호석화그룹은 박찬구 회장이 단일계열사에서 51억원을 수령하면서 전문경영인과의 격차가 2019년 8.45배, 2020년 6.14배 발생하였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5개의 계열사에서 총 2019년 123억원, 2020년 112억원을 수령하여 고액보수 최상위부터 4~5순위까지 전부 신동빈 회장에 해당하여 2019년 6위, 2020년 5위에서야 전문경영인이 위치하였다. 씨제이그룹은 이재현, 이미경, 손경식이 5위까지 차지하고, 엘에스그룹은 구자용, 구자열, 구자균이 3위까지 차지하고 있어 전문경영인과의 격차가 크게 발생했다. 하이트진로는 2020년 박문덕 회장이 54억원, 김인규 대표이사가 5.8억원을 수령하여 그 격차가 9.25배 가량 발생했고, 한진은 2019년에는 고 조양호 회장이 1, 3, 4, 5순위를, 조원태 회장이 2순위를 차지하며 퇴직금 제외 총 63억원을 수령하였다.

<표25> 지배주주, 전문경영인 중 최상위 보수수령자 간 격차(2019년)

그룹명	지배주주 중 최상위			전문경영인 중 최상위				격차 (배)
	회사명	성명	보수	회사명	성명	보수	순위	
금호석화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5,072	금호석유화학	김형일	600	2 위	8.5
금호아시아나	금호산업	박삼구	916	아시아나항공	김이배	59	4 위	15.5
다우키움	키움증권	김익래	1,091	키움증권	이원진	732	2 위	1.5
동국제강	동국제강	장세주	2,495	없음				
두산	두산인프라코어	박용만	3,991	두산인프라코어	이현순	3,251	2 위	1.2
롯데	롯데케미칼	신동빈	4,113	롯데지주	황각규	1,319	6 위	3.1
삼천리	삼천리	이만득	933	삼천리	한준호	516	2 위	1.8
셀트리온	셀트리온	서정진	1,412	셀트리온	기우성	773	2 위	1.8
신세계	이마트	정용진	3,562	신세계	장재영	1,825	4 위	2.0
씨제이	씨제이	이재현	6,186	씨제이	박근희	1,751	6 위	3.5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3,047	아모레퍼시픽그룹	배동현	1,026	2 위	3.0
애경	애경산업	채동석	1,641	에이케이홀딩스	안재석	805	3 위	2.0
에스케이	에스케이네트웍스	최신원	5,253	에스케이	조대식	4,660	2 위	1.1
에이치디씨	에이치디씨	정몽규	2,276	없음				
엘에스	이원	구자용	5,968	엘에스	이광우	1,883	4 위	3.2
엘지	엘지	구광모	5,396	엘지전자	조성진	3,387	2 위	1.6
영풍	고려아연	최창걸	1,927	고려아연	이제중	1,121	4 위	1.7
오씨아이	OCI	이우현	1,566	OCI	백우석	1,537	2 위	1.0
유진	유진투자증권	유창수	2,050	유진투자증권	김철은	1,897	2 위	1.1
지에스	지에스건설	허창수	5,521	지에스	정택근	1,748	5 위	2.4
케이씨씨	코리아오토글라스	정몽익	2,285	없음				
태광	태광산업	허승조	613	없음				
태영	태영건설	윤세영	1,164	태영건설	이재규	964	3 위	1.2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박문덕	3,266	하이트진로	김인규	791	2 위	4.1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조양래	2,057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이수일	567	4 위	3.6
한라	만도	정몽원	3,248	한라	박철홍	702	4 위	4.6
한진	대한항공	조양호	1,599	한진칼	석태수	560	6 위	2.9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정지선	3,545	현대백화점	이동호	1,528	2 위	2.3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정몽구	4,180	현대제철	김용환	1,901	4 위	2.2
효성	효성	조현준	4,517	효성	이상운	1,637	4 위	2.8

<표26> 지배주주, 전문경영인 중 최상위 보수수령자 간 격차(2020년)

그룹명	지배주주 중 최상위			전문경영인 중 최상위				격차 (배)
	회사명	성명	보수	회사명	성명	보수	순위	
금호석화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5,177	금호석유화학	문동준	843	2 위	6.1
금호아시아나	아시아나아이디티	박세창	293	금호산업	박홍석	290	2 위	1.0
넷마블	넷마블	방준혁	2,366	넷마블	권영식	857	2 위	2.8
다우키움	키움증권	김익래	1,066	키움증권	이원진	1,012	2 위	1.1
대림	디엘	이해욱	3,250	디엘	김상우	1,769	2 위	1.8
동국제강	동국제강	장세주	4,101	동국제강	김연극	598	3 위	6.9
두산	두산	박정원	1,120	두산밥캣	스캇 성철박	633	3 위	1.8
롯데	롯데지주	신동빈	3,517	롯데지주	황각규	1,055	5 위	3.3
삼양	삼양홀딩스	김윤	1,773	삼양홀딩스	김상하	495	5 위	3.6
삼천리	삼천리	이만득	630	삼천리	한준호	511	2 위	1.2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서정진	3,756	셀트리온헬스케어	김형기	1,037	3 위	3.6
신세계	이마트	정용진	3,368	이마트	강희석	2,092	4 위	1.6
씨제이	씨제이제일제당	손경식	10,221	씨제이제일제당	신현재	2,381	6 위	4.3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1,697	아모레퍼시픽그룹	배동현	683	2 위	2.5
애경	에이케이홀딩스	채형석	1,616	에이케이홀딩스	안재석	342	3 위	4.7
에이치디씨	에이치디씨	정몽규	2,203	없음				
엘에스	이원	구자용	7,922	엘에스	이광우	2,763	4 위	2.9
엘지	엘지	구광모	8,008	엘지생활건강	차석용	3,873	2 위	2.1
영풍	고려아연	최창걸	1,945	고려아연	이제중	1,147	4 위	1.7
지에스	지에스건설	허창수	4,525	지에스건설	임병용	2,093	4 위	2.2
케이씨씨	케이씨씨글라스	정몽익	4,307	케이씨씨글라스	주원식	556	8 위	4.0
태광	태광산업	허승조	680	없음				
태영	태영건설	윤석민	1,170	태영건설	이재규	990	2 위	1.2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박문덕	5,380	하이트진로	김인규	582	2 위	9.3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조양래	3,972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이수일	1,139	4 위	3.5
한라	만도	정몽원	2,734	한라	이석민	707	4 위	3.9
한진	대한항공	조원태	1,732	대한항공	신무철	282	3 위	6.2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정지선	3,527	현대백화점	이동호	1,321	3 위	2.7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정의선	4,008	현대자동차	알버트 비어만	2,275	2 위	1.8
효성	효성	조현준	4,641	효성	이상운	1,751	4 위	2.7

## 5. 복수 계열사 개별보수 공시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2019~2020년 중 복수의 계열사에서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대기업집단 지배주주는 2019년 19명, 2020년 22명이다.

이 중 2019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지배주주는 한진그룹의 고 조양호 회장으로, 2020년 3월 사망하여 퇴직금 포함 5개 계열사로부터 총 702억원을 수령하였다. 퇴직금을 제외할 경우 씨제이그룹의 이재현 회장이 3개 계열사로부터 약 125억원을 수령하여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보수를 수령하였다. 가장 많은 계열사에서 보수를 받은 지배주주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5개 계열사로부터 123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표29> 복수 계열사 고액보수 수령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현황(2019년)

그룹사명	성명	고액보수 계열사수	보수총액 (백만원)	회사명	등기여부	개별보수 (백만원)
씨제이	이재현	3	12,461	씨제이이엔엠	미등기	3,475
				씨제이	미등기	6,186
				씨제이제일제당	미등기	2,800
롯데	신동빈	5	12,271	롯데쇼핑	등기	2,214
				롯데제과	등기	2,178
				롯데지주	등기	2,072
				롯데칠성음료	등기	1,694
				롯데케미칼	등기	4,113
지에스	허창수	2	9,041	지에스	등기	3,520
				지에스건설	등기	5,521
한진	조양호	5	70,200	대한항공	등기	51,054
				진에어	등기	1,955
				한진	등기	10,280
				한진칼	등기	5,776
				한국공항	미등기	1,135
현대자동차	정몽구	2	7,040	현대모비스	등기	2,860

				현대자동차	등기	4,180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3	6,484	금호산업	등기	916
				아시아나아이디티	미등기	2,129
				아시아나항공	등기	3,439
한라	정몽원	3	6,029	만도	등기	3,248
				한라	등기	989
				한라홀딩스	등기	1,792
에스케이	최태원	2	6,000	에스케이	등기	3,000
				에스케이하이닉스	미등기	3,000
현대자동차	정의선	2	5,189	현대모비스	등기	1,787
				현대자동차	등기	3,402
에이치디씨	정몽규	3	4,289	에이치디씨	등기	2,276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미등기	1,170
				에이치디씨현대이피	등기	843
신세계	이명희	2	4,081	신세계	미등기	1,147
				이마트	미등기	2,934
신세계	정재은	2	4,081	신세계	미등기	1,147
				이마트	미등기	2,934
케이씨씨	정몽익	2	3,926	코리아오토글라스	등기	2,285
				케이씨씨	등기	1,641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2	3,700	아모레퍼시픽	등기	3,047
				아모레퍼시픽그룹	등기	653
케이씨씨	정상영	3	3,433	코리아오토글라스	미등기	1,570
				케이씨씨	미등기	932
				케이씨씨건설	미등기	931
에스케이	최창원	2	2,801	에스케이가스	등기	1,401
				에스케이디스커버리	등기	1,400
현대백화점	정교선	2	2,614	현대백화점	등기	1,292
				현대홈쇼핑	등기	1,322
한진	조원태	2	1,893	대한항공	등기	1,378
				한진칼	등기	515
하림	김홍국	3	1,637	엔에스쇼핑	등기	530
				하림지주	등기	567
				팬오션	등기	540

2020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지배주주는 지에스그룹의 허창수 명예회장으로, 퇴직금 포함 2개 계열사로부터 총 170억원을 수령, 그 다음으로는 케이씨씨그룹의 정몽익 회장

이 퇴직금 포함 2개 계열사로부터 총 163억원을 수령하였다. 퇴직금을 제외할 경우 2019년과 마찬가지로 씨제이그룹의 이재현 회장이 3개 계열사로부터 약 124억원을 수령하여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보수를 수령하였다. 가장 많은 계열사에서 보수를 받은 지배주주는 2019년과 마찬가지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5개 계열사로부터 112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표30> 복수 계열사 고액보수 수령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현황(2020년)

그룹사명	성명	고액보수 계열사수	보수총액 (백만원)	회사명	등기여부	개별보수 (백만원)
지에스	허창수	2	17,038	지에스	등기	12,513
				지에스건설	등기	4,525
케이씨씨	정몽익	2	16,268	케이씨씨	등기	6,668
				케이씨씨글라스*	등기	8,501+1,099
씨제이	이재현	3	12,379	씨제이이엔엠	미등기	2,862
				씨제이	미등기	6,717
				씨제이제일제당	미등기	2,800
롯데	신동빈	5	11,230	롯데쇼핑	미등기	1,313
				롯데제과	등기	1,900
				롯데지주	등기	3,517
				롯데칠성음료	미등기	1,000
				롯데케미칼	등기	3,500
지에스	허태수	2	8,344	지에스	등기	2,342
				지에스홈쇼핑	등기	6,002
셀트리온	서정진	2	6,942	셀트리온	등기	3,186
				셀트리온헬스케어	등기	3,756
에스케이	최태원	2	6,300	에스케이	등기	3,300
				에스케이하이닉스	미등기	3,000
현대자동차	정의선	2	5,980	현대모비스	등기	1,972
				현대자동차	등기	4,008
케이씨씨	정상영	3	5,900	케이씨씨	미등기	950
				케이씨씨건설	미등기	949
				케이씨씨글라스	미등기	4,001
한라	정몽원	3	5,663	만도	등기	2,734

				한라	등기	1,395
				한라홀딩스	등기	1,534
효성	조현준	2	5,284	효성	등기	4,641
				효성아이티엑스	등기	643
에스케이	최창원	3	4,865	에스케이가스	등기	1,901
				에스케이디스커버리	등기	1,500
				에스케이디앤디	미등기	1,464
에이치디씨	정몽규	3	4,854	에이치디씨	등기	2,203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미등기	1,796
				에이치디씨현대이피	등기	855
신세계	이명희	2	3,954	신세계	미등기	1,261
				이마트	미등기	2,693
신세계	정재은	2	3,954	신세계	미등기	1,261
				이마트	미등기	2,693
한진	조원태	2	3,098	대한항공	등기	1,732
				한진칼	등기	1,366
넷마블	방준혁	2	2,996	넷마블	등기	2,366
				코웨이	등기	630
현대백화점	정교선	2	2,827	현대백화점	등기	1,507
				현대홈쇼핑	등기	1,320
현대자동차	정몽구	2	2,466	현대모비스	등기	1,734
				현대자동차	미등기	732
하림	김홍국	4	2,307	엔에스쇼핑	등기	530
				팜스코	등기	574
				하림지주	등기	667
				팬오션	등기	536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2	2,231	아모레퍼시픽	등기	1,697
				아모레퍼시픽그룹	등기	534
디비	김남호	2	1,104	DB 하이텍	미등기	600
				디비아이엔씨	미등기	504

\* 코리아오토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와 합병 후 소멸) 지급분 8,501백만원 포함

## 6.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퇴직금 수령 내역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중 임원 사임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사례는 2019년에 5명이 수령한 7건, 2020년에 9명이 수령한 10건이다.

이 중 눈여겨볼 사례는, 엘지그룹의 구본준 당시 부회장은 형인 구본무 회장 사망 후 구광모 회장이 회장직을 이어받음에 따라 2019년중 퇴직하였고, 현재는 일제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한 LX홀딩스의 회장으로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한정 감사의견 등 경영상황 악화에 따라 퇴직하였고, 현재는 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한진그룹의 고 조양호 회장은 2019년 3월 사내이사 연임안 부결 후 사망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케이씨씨그룹은 정몽진, 정몽익, 정몽열 회장의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 지에스그룹은 허태수 회장이 허창수 명예회장으로부터 회장직을 이어받음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였다.

<표31> 고액보수 수령 대기업 지배주주 퇴직금 수령 사례(2019년)

기업집단	회사명	성명	재직기간	보수총액	퇴직소득
엘지	엘지	구본준	30년 1개월	12,104	9,842
금호아시아나	아시아나아이디티	박삼구	7년 3개월	2,129	1,078
금호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10년	3,439	2,079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	서정수	미확인	512	90
한진	대한항공	조양호	39년 6개월	51,054	47,222
한진	진에어	조양호	1년 5개월	1,955	726
한진	한진	조양호	18년 1개월	10,280	9,744
한진	한진칼	조양호	5년 6개월	5,776	4,515
지에스	삼양통상	허남각	53년 3개월	8,684	8,076



<표32> 고액보수 수령 대기업 지배주주 퇴직금 수령 사례(2020년)

기업집단	회사명	성명	재직기간	보수총액	퇴직소득
금호아시아나	금호산업	박삼구	미확인	1,456	947
금호아시아나	아시아나아이디티	박세창	11년	1,663	1,169
케이씨씨	케이씨씨	정몽익	31년 6개월	6,668	5,784
케이씨씨	케이씨씨글라스 <sup>3</sup>	정몽익	15년 9개월	8,501	5,295
케이씨씨	케이씨씨글라스	정상영	7년	4,001	2,430
효성	효성	조석래	51년 <sup>4</sup>	28,120	25,119
에스케이	에스케이디앤디	최창원	6년	1,464	805
지에스	지에스건설	허명수	24년	6,569	5,204
지에스	지에스	허창수	15년 9개월	12,513	9,680
지에스	지에스홈쇼핑	허태수	23년 10개월	6,002	5,106

## VI. 결론 및 시사점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등기임원 개별보수 공시 의무화 첫 시행 당시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자가 최소 1명 이상 존재하는 상장회사는 전체 상장회사 중 25%에 해당하였으나,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19년~2020년 중에는 전체 상장회사 중 32%를 차지하였다. 이를 상장 시장 기준으로 나뉘었을 때는 유가증권 상장회사 50% 초반, 코스닥 상장회사 20% 초반, 대기업 집단 소속을 기준으로 나뉘었을 때는 대기업집단 60% 후반, 비대기업집단 20% 후반에 해당하여 분류 기준에 따른 격차가 분명하게 존재했다. 이와 같은 격차는 회사 수 뿐만 아니라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인원 수, 이들의 평균보수 수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코스닥 상장회사보다 유가증권 상장회사에서, 비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보다 대기업

<sup>3</sup> 코리아오토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와 합병 후 소멸) 지급분

<sup>4</sup> 2018년 1월 명예회장직 전환에 따른 퇴직금 정산분을 2020년 3월에 지급

집단 소속 계열사에서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인원 비중이 더 높았고, 평균 보수 수준도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회사 내 임직원 간 격차는 상장 시장, 대기업집단 계열사 여부에 따라 일정 수준 차이는 있지만,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다. 직원의 평균급여는 2019년~2020년 중 100~200만원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전체 사내이사, 미등기임원 등의 평균급여 또한 500~1,000만원 가량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반면, 개별보수 공시 대상이 된 사내이사, 미등기임원 등의 평균급여는 더욱 큰 폭으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에서 이들에게 고액의 보수를 지급한 것이 이와 같은 추세를 견인했다고 판단된다. 일례로, 2019년~2020년 중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직원의 평균보수는 78백만원에서 80백만원으로 2.6% 증가하였으나, 일회성 요소를 제외해도 고액 보수를 수령하는 미등기임원의 평균보수는 15억원에서 19.98억원으로 33.3% 증가하였다. 특히,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대표이사는 2020년 중 184억원의 보수를 수령하여 동 회사 직원 평균보수인 1.05억과 175배의 격차를 보였고, 씨제이제일제당의 손경식 회장은 2020년 중 102억원의 보수를 수령하여 동 회사 직원 평균보수인 64백만원과 160배의 격차를 보였다.

격차는 이에서 그치지 않고 5억원 이상의 고액 보수를 지급받는 임직원 간에도 발생한다. 5억원 이상 고액 보수를 지급받는 임직원을 대기업집단 계열사 여부, 등기임원 여부, 지배주주 여부로 구분하였는데, 1) 비대기업집단보다는 대기업집단에서, 2) 미등기임원보다는 등기임원이, 3) 전문경영인보다는 지배주주일가가 주로 평균보수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격차가 큰 쪽에 셋 다 해당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지배주주 등기임원 평균보수가 2019년 21.3억원, 2020년 22.8억원으로 그 중 가장 높았고, 셋 다 해당하지

않는 비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전문경영인 미등기임직원 평균보수는 2019년 6.4억원, 2020년 7.5억원으로 그 중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이 연속되는 격차의 최상단에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지배주주일가, 재벌총수가 존재하여 초격차를 이루고 있다. 하이트진로그룹의 박문덕 회장이 2020년 중 그룹 내 가장 많은 보수인 53.8억원을 수령할 동안, 김인규 사장이 그 다음으로 많은 5.8억원을 수령하여 9.2배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에이치디씨그룹은 정몽규 회장이 2019년~2020년 동안 3개의 계열사로부터 매년 40억원대의 보수를 수령하는 동안, 정몽규 회장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다.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은 5개나 되는 계열사에 겸직하며 총합 2019년 123억원, 2020년 112억원의 보수를 수령하였다. 한진그룹의 고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에서의 퇴직소득만 472억원에 해당하고,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그 외 계열사로부터의 퇴직소득을 전부 합하면 650억원대에 이른다.

위와 같은 일련의 격차들이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이전,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개별임원 보수 공시 의무화의 목적은 당해 회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임원 보수체계를 확립하였는지, 그 체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임원 보수체계 확립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보수 공시기준의 확대와 함께 개별보수 산정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시 강화가 중요하다.

이에 임원 보수 공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개별보수 공시 임원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현재는 '1) 5억원 이상 등기임원, 2) 5억원 이상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직원 중 상위 5명'의 개별보수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 등기임원 전원, 2) 미등기임직원 중 상위 5명'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는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이 상위 5명에도 해당하여 중복 공시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에 상위 5명의 기준을 미등기임직원으로만 한정한다면 공시 내용이 중복되지 않아 개별보수 공시 임원의 비중이 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복수의 계열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가 존재할 때는 사업보고서 상 계열사 검임 내역을 공시해야 하듯이 기업집단 내에서 수령한 보수 내역을 합산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만일 특정 인물이 사업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닌 계열사에서 보수를 수령하거나, 등기임원이면서 5억원 미만의 보수를 수령하거나, 미등기임원이면서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함에도 상위 5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공시되지 않아 본 보고서의 분석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기업집단 내에서 수령한 보수 내역을 합산하여 공시할 경우, 보수 내역이 공시되지 않도록 우회하여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개별 보수의 산정 기준이나 방법을 일관되게, 추상적이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하도록 유도하고, 명문화된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개별 보수의 산정 기준을 작성할 때 '회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하였다고 작성하고 급여기준을 공시하지 않거나, 임원보수 한도 내에서 경영성과, 기여도,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작성하는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였는데, 이는 공시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성과급 중 계량적인 항목은 이해관계자가 공시 내용만 보고 역산이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임원 보수체계의 확립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개정 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이 공시되지 않고 있어, 만일 회사 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본문 중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퇴직금 수령 내역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배주주가 과도한 지급률을 적용받아 천문학적인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였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공시되어 있어야 그 지급근거를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퇴직금 지급 시 월평균급여, 근무기간, 지급률, 위로금 등 포함 여부가 구체적으로 공시되어 있어야 천문학적인 금액의 퇴직금이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